

오늘의 주요기사

2023 5 1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12								1
江原日報	15	"		가	"				1
江原日報	22		,						2
강원도민일보	26								3
the Leader	062						[1/4]		4
the Leader	063						[2/4]		5
the Leader	064						[3/4]		6
the Leader	065						[4/4]		7
江原日報	14								8
江原日報		[]					8
江原日報	15		.						9
강원도민일보	14								9
강원도민일보	19								9
강원도민일보	15								9
江原日報	13								10
江原日報		[]					10
강원도민일보			6				56	...	11
江原日報		[]					13
江原日報	21	[]	()		13
강원도민일보	03		5				...		14
江原日報	07		10		3		720		15
강원도민일보	02								15
강원도민일보	01	KH					2024		16
강원도민일보	02								16
江原日報	01	6	5				~	...	17
강원도민일보	10						'5000		18
강원도민일보	06	5		,					18

강원도민일보	23	[]		19
강원도민일보	23	[]	' e '	20
江原日報	19	[]	5 ,	21
江原日報	19	[]	,	22



강릉명륜고 체육관 개관식 강릉명륜고 체육관 개관식 및 상징조형물 제막식 행사가 지난달 28일 강릉명륜고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강릉시장, 김도영 명륜학원재단 이사장, 이수하 총동문회장, 정광대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내 최초 산림형 국가정원 유치”

내일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기념식 개최
도내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참가 결의 다져

【정선】도내 기관·단체장과 도민들이 정선 가리왕산 일원에 대한민국 최초의 산림형 국가정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정선군은 2일 북평면 알파인 센터 일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이철규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400여명이 참가해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을 축하하고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의 의지를 다짐 예정이다.

개장 기념식에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영상 경

과 보고를 비롯해 감사패 수여,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세리머니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기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기원하는 수건 퍼포먼스는 군민의 하나된 마음과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정부와 정선군의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합의에 따라 탑승장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 올 1월3일부터 운영됐으며, 편도3.51km 구

간에 최대 8인이 탑승 가능하고, 정상까지는 20분이 소요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준치는 올림픽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뤄진 결과”라며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내 최초의 산림형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민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

江原日報

화창한 봄날, 강원인 화합을 향해 힘차게 '나이스샷'



◇강원일보 창간 78주년 기념 제3회 재경강원도고교동문친선골프대회가 지난달 28일 춘천 라데나IGC에서 열려 13개 학교 60명의 참가자가 골프 경기를 통해 친선과 화합을 다졌다. 대회에 참가한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윤명식 강원도민회중앙회 상임부회장, 이호 강원사랑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경고교동문회원들이 대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13개 동문팀 참가 친목 도모 “강원도 자부심 높이는 기회”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 주최 제3회 재경강원도고교동문친선골프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화창한 봄날에 어울리는 푸르른 필드 위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지난달 28일 춘천 라데나IGC에서 13개 재경강원도고교동문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 극복 이후 한결 부담 없는 가운데 친목을 도모하는 귀한 자리였다.

이날 강릉고 강릉제일고 강원사대 부고 명문고 동해북평고 삼척고 성수고 양구고 영월고 진광고 춘천고 춘천기계공고 홍천고 등 13개 참가팀의 동문들은 새벽부터 이동했음에도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웃음꽃을 피우며 녹색 필드에 나섰다. 골프의 대중화 영향으로 대부분의 동문이 '신수급' 실력을 갖췄지만, 말 그대로 '명랑골프'를 하며 스코어보다 좋은 추억 만들기엔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다.

재경 춘천고 동문팀이 합계 300타(개인 평균 75타)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챔피언이었던 강릉고(합계 303타)를 3타 차로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집계한 개인전 1위는 재경 강릉고 최영만 동문

(70.2타), 2위는 재경 춘천기계공고 최홍용 동문(70.8타), 3위는 재경 영월고 정일옥 동문(71타)에게 각각 돌아갔다. 또 롱기스트는 무려 290m를 페어웨이에서 안착시킨 재경 영월고 신남선 동문, 니어리스트는 홀컵에서 0.2m 거리에 안착시킨 재경 성수고 김정민 동문이 기록했다. 특히 롱기스트는 2년 연속 영월고 동문(정일옥-신남선)에게 돌아가는 진기록을 남겼다.

강원도민회중앙회 윤명식 상임부회장은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열린 만큼 더욱 뜻깊은 대회였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회가 앞으로도 동문들의 화합과 강원도의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강원도의장은 축사에서 “재경강원도고교동문친선골프대회는 강원도라는 뿌리를 둔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의 정과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어서 뜻깊다”며 “모두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재경강원도고교동문의 저력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강원도의 힘’”이라며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원도인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우원기자 trustme@



◇재경 강릉고 동문팀.



◇재경 강릉제일고 동문팀.



◇재경 강원사대부고 동문팀.



◇재경 명문고 동문팀.



◇재경 동해북평고 동문팀.



◇재경 삼척고 동문팀.



◇재경 성수고 동문팀.



◇재경 양구고 동문팀.



◇재경 영월고 동문팀.



◇재경 진광고 동문팀.



◇재경 춘천기계공고 동문팀.



◇재경 춘천고 동문팀.

강원도민일보

2023 05 01 ()
26



시험림 생태관광을 만나다 걷기대회
강원도 시험림 생태관광을 만나다 걷기대회가 지난 29일 춘천시 동면 연산골에서 김진태 도지사,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허인구 G1방송 사장, 양숙희 도의원, 지승민 시의원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the Leader / All about 지방의회



▲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튼튼하고 예술이 숨 쉬는 안전한 강원도

청년 가정에 일자리, 예술인은 안정적 창작, 지진 방재도 지원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돼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지방의회 All about' 코너를 진행한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 강원도의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

국힘 43명 vs. 민주 6명...초선 35명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11대 강원도의의회는 전체 의원 49명 중 국민의힘 43명,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0대 의회는 46석 중 민주당이 35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의회는 초선 의원이 35명을 차지, 전체 시의회의 의원 중 87%에 달한다.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은 권혁열 의원(국힘·강릉4)이다. 지난해 7월 1일 권 의장은 단독후보로 출마, 48표 중 찬성 4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제 1부의장은 이기찬 의원(국힘·양구)이, 제2부의장은 김기홍 의원(국힘·원주3)이 선출됐다.

의회 상임위원장은 심영곤 의원(국힘·삼척2)이 의회운영위원장을, 한창수 의원(국힘·횡성군1)이 기획행정위원장을, 김기철 의원(국힘·정선군)이 경제산업위원장을, 박기영 의원(국힘·춘천3)이 안전건설위원장을, 김용복 의원(국힘·고성군)이 농림수산업위원장을 박길선 의원(국힘·원주)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원미희 의원(국힘·비례)은 사회적 단절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

소년 혹은 청년이다.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공식적인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다. 2021년 대구에서 청년이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2022년 서울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다 학대 치사한 사건 등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전국 중·고등학교 및 만 13~34세 대상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4만3832명 가운데 약 4.11%가 가족돌봄청년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런 사회적 이슈를 파악, 가족돌봄청년과 가족에 대한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돌봄청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담 및 심리·정서, 청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원미희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돼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강원도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경각심이

the Leader

높아진 가운데 의회가 지진 방재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규만 의원(국힘·횡성2)은 지난 2월 '강원도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 대상 공공시설물 2825곳 중 내진기능을 이미 갖췄거나 보강이 완료된 시설은 40.1%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는 2035년까지 해마다 도내 공공시설물 140여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했지만, 도는 관련 예산 수립 근거가 빈약해 절반 수준인 70개소를 평가하는 데 그쳤다. 성능 평가에서 불합격되더라도 도비가 없어 시·군비로 내진보강사업 비용을 전액 충당해야 했다.

조례안에 도지사는 지진 방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지진 방재 사업을 비롯해 지진 예방과

대응,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만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나라 지진은 매년 강도와 횡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강원도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일본처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센터가 설립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까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각종 예술인 긴급 지원 사업에서 소외됐다.

심오섭 의원(국힘·강릉2)은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도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생활 안정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 △사회보장

▼ 강원도의의회 의원들이 4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강원도의의회

확대 및 직업안정·고용 창출 지원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추진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등을 맡는다.

심오섭 의원은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강원도가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지명을 강원특별자치도로 개명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도는 하천·도로교통 등 안내표지판을 4월부터 변경한다. 조례, 정보시스템 등 ‘강원특별자치도’ 개명 작업에 착수했다. 해양·하천 등 10개 사업분야의 지명 변경 대상은 10개 분야 2422개다. 소요 예산은 2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정보시스템 명칭도 변경된다. 정보시스템은 주소지와 토지대장 등 정부·지방단체 업무와 연계된 시스템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명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CI(로고)와 캐릭터, 전용서체 등 도를 대표하는 상징물도 변경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기본 디자인을 확정해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6월 11일 최종 공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조례와 규칙에 담긴 강원도 명칭을 바꾸는 일괄개정조례안과 일괄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9일 공포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릉에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제2청사’가 오는 7월 강릉에 설치한다. 그에 따르면 2청사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로 정했다. 2청사 조직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를 지역본부로 신설하고 지역본부 체계하에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등 3국 1기획관 11과 5사업소로 개편된다. 정원은 지역본부 225명, 사업소 91명 등 316명이다.

정부 인력 동결 기조를 반영해 지역본부장 1명 외 증원 없이 기존 정원을 재배치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3월 30일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특별자치도는 50년을 기다려온 강원도민의 숙원”이라며 “특례에 대해 부처 협의가 진전



▲ 강원도의회 청사 전경

되지 않는 만큼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올해부터 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개편됐다. 지난해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만 4세까지 지원되던 육아기본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올해부터 0~11개월은 정부 부모급여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월 50만원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는 월 10만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2019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출생아부터 만 4세까지 매월 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028년부터 만 10세 미만까지 육아기본수당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은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를 강원도만의 복지정책 브랜드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L

江原日報

2023 05 01 ()
14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한국노총 동해지역지부 주최 세계노동절 기념 대회가 지난달 28일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심규언 시장, 이동호 시의장과 시의원들, 김기하·최재석·유순옥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4 30 ()

[포토뉴스]부처님 오신 날 기념 점등 법요식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점등 법요식이 지난달 29일 동해시 천곡동 시청로타리 광장에서 동해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임법 삼화사 주지).동해시불교신도연합회(회장:정복식) 주최로 이철규 국회의원,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시의장과 시의원들, 김기하.최재석.유순옥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江原日報

2023 05 01 ()
15



평창중·고 동문체육대회 평창중·고 동문체육대회가 지난달 29일 평창중·고에서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과 군의원들,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정장호 평창교육장, 이정균 평창중·고 총동문회장 등 내빈들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01 ()
14



태백 천상의 산나물축제 개막 태백 천상의 산나물축제 개막식이 최근 문화광장에서 이상호 시장과 이철규 국회의원, 고재창 시의장, 문관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축제는 1일까지 열린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01 ()
19



속초 테마파크 피노디아 초대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 박물관으로 조성되고 있는 속초 테마파크 피노디아(대표 남대현)는 지난 29일 피노디아 1층아트갤러리서 초대작가양숙희(도의원) 등 전국104명의미술작가들이참가한 가운데 초대작품전을 열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01 ()
15



홍천지역 첫 모내기 홍천군 첫 모내기가 최근 북방면하화계1리의 최영환씨 농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이영욱 도의원, 심영주 홍천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江原日報

2023 05 01 ()
13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송편 나눔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성옥)는 지난달 28일 고성종합체육관 식당동에서 김일용 군의장, 이지영 도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버이날 맞이 송편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江原日報

2023 04 30 ()

[포토뉴스] 화천 상서면민 화합의 날 행사



제1회 상서면민 화합의 날 행사가 지난달 29일 상서중학교에서 한기호 국회의원, 최문순 군수, 노이엽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김용기 상서면 용화축전위원회 위원장, 기관사회단체장, 상서면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넋 승화시킨 영월 제 56회 단종문화제 개막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 주제로 28일 개막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 제56회 단종문화제가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 주제로 28일 개막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3회 정순왕후선발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방기준

비운의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애달픈 고혼과 충신들의 숭고한 넋을 전통문화축제로 승화시킨 영월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인 올해 제56회 단종문화제가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 주제로 28일 개막됐다.

문화제 첫날인 28일 오전 10시 관풍헌과 장릉에서는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성한사회 주관의 전국 한시백일장과 일반·학생백일장이 열렸다.

이어 오후 1시에는 여성회관에서 단종제 학술심포지엄이, 2시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단종의 비(妃)정순왕후의 삶과 고귀한 뜻을 계승하고 이 시대의 올바른 여성상을 찾는 기혼여성 대상 제23회 정순왕후선발대회가 진행됐다.

주 행사장인 동강둔치에서는 한국생활개선 영월군연합회(회장 장미자)가 전통음식 재현행사를 마련했다.



▲ 제56회 단종문화제가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 주제로 28일 개막된 가운데 최명서 영월군수가 관풍헌에서 진행되는 전국 한시백일장을 살펴보고 있다.방기준

30일까지 1일 4회에 걸쳐 떡메치기 체험과 인절미 및 두부 시식행사를 비롯해 영월의 대표음식인 곤드레밥과 손칼국수·개두릅전·도토리장떡·오가피좁쌀식혜 등 회원들이 직접 만든 향토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또 올해 신설프로그램으로는 강원도민일보가 제작한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어진을 만나볼 수 있는 단종어진전시관이 조성됐으며 단종 유배길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체험행사인 '단종과 놀로와' 등 다양한 전시체험관이 운영된다.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올려라! 깨비역사퀴즈쇼!'와 '단이 탐험대 깨비마블'등도 진행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한 행사장 조성을 통해 아이들도 가상의 공간에서 축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날 오후 6시 동강둔치 메인 행사장에서는 단종 주제의 개막퍼포먼스에 이어 유상범 국회의원과 최명서 군수, 심재섭 군의장 및 군의원, 김길수·윤길로 도의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마련된다.



▲ ▲제56회 단종문화제가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 주제로 28일 개막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3회 정순왕후선발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방기준

또 가수 양지은·설하윤·유지광·이도진·조영구 등의 신명나는 콘서트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특히 강원도민일보와 영월드론(대표 김경목)은 이날 밤 8시 동강둔치에서 단종제 기념을 위해 '단종과 비(妃)정순왕후 사랑 이야기' 주제의 드론라이트쇼를 진행한다.

다양한 LED조명을 갖춘 군집드론 100대를 활용, 100여m 상공 밤하늘에서 10여분간 아리랑 배경음악 속에 태극 문양에 이어 단종과 정순왕후의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를 비롯해 제56회 단종문화제 글씨와 단종과 정순왕후가 서로 마주 보고 사랑 이야기를 담은 모습 등을 선보이며 백년해로를 기원한다.



▲ 제56회 단종문화제가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 주제로 28일 개막된 가운데 동강둔치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단종어진전시관을 둘러 보고 있다.방기준

최명서 영월군수는 "올해 단종문화제에서는 군민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 운영,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을 표현하는 행사장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교육체험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江原日報

2023 04 30 ()

[동정] 엄기호 강원도의원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1일 오전 10시 철원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갈말읍민의날 행사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5 01 ()

21

◇엄기호도의원(철원)은 1
일 오전 10시 철
원종합경기장 보
조경기장에서 열
리는 갈말읍민의
날 행사에 참석.



2023 05 01 ()
03

강원도민일보

강특법 5월 로드맵 돌입... 여야 협치 공청회 첫단추 청신호

허영·김진태 등 당대표 협조 요청
이르면 3~4일 개최 의견 모아져
도, 차질 없도록 개정안 조율 속도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5월 입법 로드맵' (본지 4월 28일자 3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도와 도 정치권의 여야 협치 광폭행보로 입법 작업의 첫 단추인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주말사이 여당 수뇌부와 정부 부처를 전담 마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독대하며 '5월 본회의의 강원특별법상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 28일 이 대표를 직접 만나 강원특별법 특례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5월중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교흥 행안위 야당간사에게의 사실정에 반영하도록 당부하며 당 차원의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을 불어 넣었다. 김 지사도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강원특별법 5월 로드맵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와관련, 강원특별법 개정안 '5월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단추인 공청회는 이르면 오는 3~4일쯤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규정을 담은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가 무산된 이후 최종 마지노선은 '5월 국회'에 달렸다고 보고 첫 단추인 '공청회' 개최에 총력을 펼쳐왔다.

이는 5월 한달간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공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행안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5단계를 소화하기 위해선 '무쟁점 법안'으로 신속히 이뤄

져야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 첫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도와 정치권은 1일쯤 행안위 여야간사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과 두번째 단계인 행안위 법안소위, 전체회의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강특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전면 지원사격에 나선다.

도는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특례규정이 담긴 개정안 조율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특례조항 중 '선택조항'을 중심으로 세부안을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지사는 "5월 입법 로드맵의 첫 단추를 잘 맞추기 위해 여야당대표도 적극 협조를 약속한 만큼 개정안의 내용도 가급적 공청회 이전에 기본 골격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강원도와 정치권의 협치가 5월 한달간 승가뿐 일정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매달 10만원 적립 3년 뒤 720만원 준다

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출시

강원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3년 만에 적립금의 2배를 돌려주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강원도는 도내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도 및 시·군이 월 10만원을 매칭, 2배인 7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2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거주 및 도내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창업한 기준중위소

득 150% 이하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00명이다. 3년간 청년이 10만원, 도 5만원, 시·군 5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도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따라 도내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결혼자금 및 창업자금 등 자산형성, 지역 정착 등을 돕기 위해 청년 디딤돌 사업을 마련했다.

앞서 도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시작했으며 향후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중심은 청년으로 이들이 지역에 살고 싶게 하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gwwell.kr/double>) 또는 강원도(www.provin.gangwon.kr) 및 강원일자리 정보망 (<https://job.gwd.go.kr/gwjj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강원이·특별이' 잠정 결정

도의회 심의 후 내달 11일 최종 공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할 새로운 캐릭터로 '강원이(호랑이)'와 '특별이(반달가슴곰)'가 잠정 정해졌다. 이와 관련, 강원도 상징물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추후 행정절차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인 6월 11일 최종 공개할 방침이다.



▲강원이·특별이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입법예고에는 호랑이와 반달가슴곰을 형상화 한 강원특별자치도 새 캐릭터 '강원이', '특별이', 그리고 CI(대표상징물) 등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 새 캐릭터는 대한민국 상징동물인 호랑이와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동물인 반달가슴곰을 의인화한 것이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5 01 ()
01

KH그룹 잇단 사법리스크

2024청소년올림픽 불뚱 우려

속보=평창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한 KH그룹의 사법리스크(본지 4월28일자 2면)가 연이어 터지면서 당장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알펜시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주무대로도 활용될 계획이지만 알펜시아 입찰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 서 이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은 지난 2021년 6월 알펜시아를 낙찰받으며 △고급빌

라·회원제 골프장(27홀)으로 이뤄진 A지구 △호텔·콘도·위터파크·스키장이 자리한 B지구 △스키 점프대·바이애슬론 경기장 및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제외한 C지구 등을 인수했다. 여기에 알펜시아 인근 미개발부지 약 33만 578㎡를 포함해 대지면적 483만 7015㎡ 규모를 소유하게 됐다.

박지은 ▶2면에 계속

강원도민일보

2023 05 01 ()
02

청소년올림픽 준비작업 연쇄 차질 빛나

KH강원개발과 대회 협조체계 구축 대회기간 시설 사용 등 악영향 우려

▶1면에서 계속

검찰은 KH강원개발이 7115억원에 알펜시아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로부터 인수 자금을 마련, 이들 회사에 4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매각 주관사인 안진빌로이트회계법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압수수색해 매각 관련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엔 최문순 전 지사 자택과 KH그룹 본사, 관계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매각 관련 입찰 계약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했다.

더욱이 KH강원개발 차기 대표로 내정된 한우근 KH필룩스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한 대표가 KH

강원개발 대표로 재임명되더라도 알펜시아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인 등이 끌기에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한 대표는 KH필룩스·KH일렉트론 부사장 등과 함께 입찰 방해, 배임 등에 대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KH그룹이 각종 사법리스크에 얽히면서 2024대회 성공개최 준비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KH강원개발은 2024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포츠파크 바이애슬론 경기장 내 대회 개최 및 대회기간 숙박·식음 등 시설 사용 등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KH그룹과 계열사인 KH강원개발을 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제2막을 여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작업에도 연쇄적인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은 pje@kado.net

6조5천억대 사업비 ‘영월~양구 고속도’ 정부 첫 타당성 검토

도내 역대 최대 규모
道 ‘영월~삼척’ 총력전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속보=총 사업비 6조5,000억원으로 강원지역 역대 최대 규모의 역사(役事)인 ‘영월~양구 강원내륙고속도로’(본보 2022년 12월2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정부가 첫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접경지와 폐광지를 잇는 고속도로의 추진이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영월~양구 강원내륙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영월~양구 고속도로는 1999년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전국 10×10 국가고속도로망에 반영됐으나 현재까지 실제 검토는 이뤄진 바 없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정부 예산에 처음으로 강원내륙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포함시켰으며 최근 용역을 발주,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더욱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 이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정부 계획 반영 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검토가 시작됐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강원내륙고속도로는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 136km를 연결한다. 추후 경북 봉화~영양~청송~영천 구간(173km)까지 완공되면 강원



접경지부터 부산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가장 낙후한 접경지와 폐광지를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정책성이 높지만 강원 구간 사업비만 6조5,416억원에 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원도정 역점 SOC로 꼽히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역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번 주 중에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타 조사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정치권이 예타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B/C(비용 대비 편익)가 0.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져 장담이 힘든 상황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영월~양구 고속도로는 이제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며,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반드시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 05 01 ()
10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국비 확보 목표 '5000억원' 역대 최고

2024년도 예산확보 2차 보고회
전년 목표액 대비 700억원 증가
신규사업 41개·현안 대거 포함
민선8기 시정 바로미터 전망

민선8기 춘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
국비 5000억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육동한 시장은
1일 오후 3시 국회를 찾아 민선8기
주요비전에 대해 설명한다. 예산 부
처십의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춘천시는 최근 2024년도 정부예
산확보 2차 보고회를 열고 국비 대상
사업 5701억원 중 5000억원(88%)
을 최종 확보 목표로 정했다. 지
난해 목표액 4300억원 대비 700억원
이 늘어났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신

규사업으로는 41개(363억원)를 발
굴,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R&D지원
센터 조성, 디지털 치료기기 생태계
조성 사업 등 첨단 지식산업도시 조성
을 위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민선
8기 춘천시가 최고의 교육도시를 지
향하는 가운데 드론 UAM 기술인재
육성 추진사업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
해 추진 중이다. 계속사업은 △서면
대교 건설(50억원) △보건소 신축
(25억원) 등 1541억원을, 공모사업
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60억
원) △춘천 호수정원조성사업(25억
원) 등 360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
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전은 시정 바로미
터가 될 전망이다. 민선8기 춘천시의
비전을 현실화 하기 위해선 국비 확
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육동한 시장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중앙정부를 직

접 찾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있다.

육 시장이 2차 보고회 당시 "중앙부
처를 상대할 경우 나의 인적 네트워크
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것 역시
중앙부처에서 평생을 일해 온 경
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강원도와 공조해 전
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국회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민선8기 주요
비전과 관련한 핵심 사업들이 잘 추
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ssnnee@kado.net

2023 05 01 ()
06

강원도민일보

5월 동행축제, 강원 경기침체 해결사 기대

28일까지 증기제품 소비촉진 행사
춘천·원주·평창 등 대규모 진행
강원더몰·일단시켜 특별할인도

유통·소비의 계절인 5월을 맞이했지
만 강원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
기업 모두 경기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기 활성
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5
월 전망경기지수(BSI)를 보면 소상공
인은 전월 대비 2.4p 하락한 88.9를 보
였고 전통시장도 79.8로 전월보다 4.7p
내렸다. 지수 100을 밑돌면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하다는 뜻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모두 경기악화를 우려하고 있
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의 '2023년 5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
사' 결과를 보면 강원 중소기업 5월 업
황전망 경기전망지수는 81.4로 전월대
비 2.7p, 전년동월대비 4.1p 하락했다.
지역 경제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도내 지자체들은 유통
·소비촉진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중소벤처기업
청은 오는 28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
사인 '2023대한민국 동행축제'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9월, 12월까지 3차례 열린

다. 첫 번째인 5월 행사의 슬로건은 '함
께 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다.

또 강원지역에서는 어린이날 연휴인
5~6일 춘천 에니메이션박물관에서
가족단위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강원지
역 우수 로컬제품 판촉전과 어린이 행
사를 연계한 상생소비 행사 '춘천봄빛
장터'가 열린다. 춘천봄빛장터는 40여
개 도내 우수기업이 참여해 10~50%
할인, 1+1 등 특별할인 판매를 진행하
고 에니메이션상영, 마술·마임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도내 전통시장에서도 소비촉진을 위
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원주시 중
양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대에서는
원주 봄빛 나들이 동행축제를 마련해
원주혁신도시 자녀 200여명을 초청한

어린이장보기와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경품행사, 친환경 다화용기를 활용한
맥주 시음 및 문화행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평창봉평전통시장 등 5개 문화관
광형 전통시장은 동행축제 기간 동안
주말장, 문화공연, 어린이 경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또 축제기간 중 라이브커머스를 통
해 최대 50% 할인가 및 무료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강원도 대표
온라인몰(강원더몰, 일단시켜, 일단
떠나)의 특별할인, 강원직거래장터 등
이 진행된다. 윤종욱 강원중기정장은
"동행축제를 통해 강원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들이 성공적으로 흥
보되고 지역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강원도민일보

2023 05 01 ()
/ 23

강릉세계합창대회 차질 없어야

-지구촌에 관광강릉 홍보, 전화위복 계기로

강릉 산불에 대한 2차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조기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는 피해 조기 극복 특별대책을 수립해 피서철에 앞서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 산불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강릉은 7월 열리는 강릉 세계합창대회 준비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관광문화도시 강릉을 지구촌에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대회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인터컬처(Interkultur) 재단에서 주관하는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합창 축제입니다. 7월 3~13일 11일간 강릉 아레나 등지에서 열리는 강릉 대회에는 국외 91개팀, 국내 230개팀 등 총 34개국 321개팀 8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북미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참가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월화거리를 시작으로 강릉대도호부 관아까지 펼쳐지는 거리 퍼레이드는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명주

예술마당에서 열리는 마스터 급 음악 전문가들의 워크숍과 총회는 행사의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합니다.

특히 전쟁국인 러시아 어린이 합창단도 참가하기로 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기독교 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실버합창단, 장애인·다문화합창단까지 전국 47개 도시의 창단들이 종교와 세대를 뛰어넘는 공연을 갖습니다.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의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강릉은 세계 속의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회 기간을 전후해 지역의 역사와 여행 자산을 알리는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미디어와 개인 매체 등 온오프라인 홍보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마다 리허설을 실시해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숙박, 의료 서비스에도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 의지가 중요합니다. 산불 피해의 아픔을 털고, 세계합창대회를 통해 다시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01 ()
/ 23

행안부 '고향사랑e음' 대폭 개선을

-고향기부제 너달, 민간에 개방하고 규제 타파해야

야심 차게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3분의 1시점을 지나면서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부 실적 공개 및 고액기부자 홍보에 나서는 등 점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 불과 두 달을 앞두고 기부실적이 낮은 지자체마다 애를 태우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안착과 활성화 주원인으로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규제 및 총괄플랫폼 '고향사랑e음'의 평면적인 운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공공플랫폼 '고향사랑e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정보를 총괄하고 기부 절차를 이행하는 유일한 온라인 통로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평면적인 나열에 그칠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진행된 지자체 답례프로그램 및 현장 방문을 유도하는 모금사업을 전진 배치하는 등 입체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와 이벤트 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문화에 능숙한 시민, 특히 청장년 세대 정서와는 동떨어진 운영입니다.

수십억원의 막대한 국비를 들여 구축된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 단순 운영이 개선되지 않은 채 너달을 넘기면서 혈세 낭비 비판이 나옵니다. 민간 플랫폼에 개방하는 것이 더 수월하며 효

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행안부의 정책과 조치가 규제와 지자체 통제 지향으로 흐른 취약점은 더 있습니다. 모금 수단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기부금 상한액을 두어 통제하고 기부자 및 기부대상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인지도가 낮은 시행 초기에는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줘 자발성을 훼손합니다. 지자체 또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 관계인구, 생활인구로 확장하는데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부자와 공감하는 통로에 제약이 많다 보니 기부금 활용 사업에 대한 발길이 위축되고 답례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데도 소극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안부는 앞서 시행한 일본의 문제점 등을 참조해 규제 사항을 뒀다고 하지만, 단순 비교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도 어렵습니다. 어떤 제도든 시행 초안착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행안부는 제도적 취약점을 인정하고 개선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공공플랫폼 '고향사랑e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 통로를 개방하는 등 활성화로 개선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5 01 ()
/ 19

전망 어두운 5월 경기, 도내 기업 살릴 처방 찾아야

올 4월 강원지역 기업경기가 3월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4월 강원 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 분야업황 BSI는 72로 전월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65로 같은 기간 11포인트 뛰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매출, 생산, 신규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높았다. 5월 제조업 업황전망 BSI도 제조업은 5포인트, 비제조업은 7포인트 각각 올랐다. 그러나 도내 기업들은 5월 지역경기는 어렵게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5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에서 5월 도내 업황전망 SBHI는 81.4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도내에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상승세를 이어 오다 5월 들어 올해 처음으로 전월보다 낮아졌다. 관광시즌을 앞두고 있는데도 서비스업 분야 경기전망이 전월보다 9.2포인트나 떨어지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도내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침체가 예사롭지 않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계기로 민간소비가 되살아나면서 경기 반등을 이끌었다.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며 음식·숙박업 지출이 늘고 여행·공연 같은 대면 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이 그나마 소폭의 성장으로 나타

난 것이다. 하지만 체감물가 고공 행진,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등이 계속되고 있어 소비에 기댄 성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회의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상위 600대 기업 대상 B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전망치는 93.8, 4월 실적치는 92.2를 각각 기록했다. 전망치는 지난해 4월(99.1), 실적치는 지난해 2월(91.5)부터 연속 기준선(100)을 하회했다. 전망치 14개월, 실적치 15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돈 것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환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BSI가 이처럼 저조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건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인건비 및 가격 상승, 업체 간 과당경쟁 등으로 기업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돌파구를 찾기 힘든 장애물들이다. 기업이 위축되면 경기 침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투자와 고용을 줄인다. 이는 가계 소득 감소, 소비 둔화, 성장을 저하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판국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다. 시장이 원하는 정책이 절실한 때다. 종전과 다른 도내 기업 살리기 처방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江原日報

2023 05 01 ()
/ 19

여야 내년 총선 인재 영입,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동시에 ‘여소야대’ 구도에서 입법의 키를 쥐 거대 야당을 평가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각 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역 조직 점검과 인재 영입 등 후보자 스크린이 이미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2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무감사위원 6명에 대해 의결하고 선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달 10일부터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당무감사는 각 지역 위원장의 지역당 운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여야의 조직 점검과 인재 영입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당연히 해야 하는 작업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정도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국회를 보면 차라리 AI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반응은 국회의 위상을 잘 보여 준다. 요즘 같은 경제 위기 상황, 북핵 위기, 국가 혼란 상황에도 여야의 정쟁은 계속되고 있다. 민생 문제와 국가적 미래에 대비하는 일은 뒷전이다. 확증편향적 당리당략으로 세월만 보내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답

답증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국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관행, 권한을 다누리면서 비리가 드러나면 면책권을 앞세워 국회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사악함, 개인의 투기 의혹과 비리 등 각종 스캔들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 선동적 언행과 탐욕의 극치로 흑세무민하는 행위로 국민은 피곤하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신뢰를 잃은 건 헌법적 의무는 망각하고 국가 이익보다 그저 편향적 정쟁과 권력에 취해 불나비 같은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밥그릇 늘리고 선심 예산 처리할 땐 의기투합한다. 온갖 특혜는 다 누린다.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년 앞으로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정치권 불신 극에 달해

시대 흐름 통찰할 수 있는 인사 제대로 골라야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월 110만원)와 차량유지비(35만원), 명절휴가비(연 820만원)도 나온다. 구속돼도 세비가 지급된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특권을 줄이겠다고 입버릇처럼 공약해 놓고 지킨 적이 없다. 나랏일을 돌보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소신과 입지를 지키고 세대 흐름을 통찰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나라와 지역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찾아가는 진정성과 열정을 통해 건강한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내년 총선은 바로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